

술·음료, 관람객은 반입 금지하면서 구장내 매점선 판매 허용

야구장 안전 핑계 ‘꼼수’ 부린 KBO

시민들 “알박한 상술” 비난

한국야구위원회(KBO)가 올 시즌 관람객의 야구장 내 술·음료 반입 금지를 결정하면서, 이들 품목을 구장 매점에서는 판매도록 해 알박한 상술이라는 지적이다.

쾌적하고 안전한 관람문화를 정착자는 취지에서 술 등의 반입을 금지한 KBO가 입점업체를 위해 구장 매점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.

이 때문에 대다수 팬들은 KBO가 관람객들의 안전을 핑계로 야구장에 입점한 매점의 매출을 올려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.

17일 KBO에 따르면 오는 28일 광주·기아 챔피언스필드 등에서 열리는 프로 야구 개막전부터 Security(안전)·Attention(주의)·Fresh(쾌적)·Emergency(응급상황)의 약칭인 ‘세이프(SAFE) 캠페인’에 따라 야구장 내 술 및

캔·병·1ℓ 초과 페트(PET)병의 반입이 제한된다.

다만 1ℓ 이하 미개봉된 비알코올성 페트 음료는 1명당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.

또 반입 가능한 소지품의 크기와 개수도 제한된다. 가방(가로45cm×세로45cm×폭20cm 이하) 1개와 쇼핑백류(가로30cm×세로50cm×폭12cm 이하) 1개까지

지참 가능하다. 정해진 규격 이외의 가방 또는 아이스박스나 상자도 야구장 안으로 들고 갈 수 없다.

이번 반입금지 결정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안전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야구장을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게 KBO 측의 설명이다.

하지만 KBO의 입장과 달리 외부반

입은 금지하면서도 야구장 내 매점에선 반입제한 품목판매를 허용해 반발을 사고 있다.

KBO는 반입이 제한된 술·캔·병·1ℓ 초과 품목에 대해선 야구장 안 매점에서 종이컵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. 다만 한 번에 1명당 4잔 이상 구입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.

야구팬들은 “성숙한 관람문화를 정착하자면서 야구장 매점에서 술을 팔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”, “도대체 누구를 위한 캠페인인지 모르겠다”, “매점에서 비싼 술을 사 마시라는 얘기인데 야구장에서마저 서민 주머니를 털어갈 셈이냐”라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.

일부 팬들은 주류 반입을 금지하더라도 몰래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어서 KBO의 의도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.

/이충행기자 glee@kwangju.co.kr



나비 앞에서 활짝 웃는 동심

18일 오후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생태관에서 오는 5월 1일 함평 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‘성공기원 나비 날리기’ 행사가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나비를 날리며 즐거워 하고 있다.

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전남대병원 급성심근경색 시술 전국 최고

최근 3년간 대학병원 20곳 1만636건 중 24% 달해

전남대병원이 심혈관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전남대병원은 최근 3년간(2012~2014년) 전국 대학병원 등 20개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 치료술인 경피적관상동

맥중재술(PCI) 시술 건수를 조사한 결과, 총 1만636건 중 24%에 달하는 2538건을 시행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또한 시술 성공률도 99%를 기록해 최상의 진료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.

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은 심근경색증 환자의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을 대퇴동맥을 통해 삽입된 풍선 카테터(도자) 및 스텐트를 통해 넓혀주는 시술이다.

전남대병원은 지난 3년간 PCI 시술 건수 전국 1위를 유지했으며 두 번째로 많이 시행한 병원보다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. 연도별로는 전남대병원이 2012년 830건,

2013년 888건, 2014년 820건을 각각 기록했다.

전남대병원의 PCI 실적은 2012년 두 번째로 많이 시행한 A대학병원(299건)의 2.7배였으며, 2013·2014년에는 2위 B대학병원(418, 421건)의 거의 2배에 달했다.

전남대학교병원은 2005년부터 대한심장학회 및 국립보건원에서 후원하는 ‘한국인 급성심근경색증 등록연구’를 주관하고 있다.

/채희종기자 chae@kwangju.co.kr

오늘의 날씨

해돋이 06:39
해질녘 18:43
달돋이 05:34
달질 17:29

비 그치면 산책할까?

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아침부터 점차 비가 그치고 오후엔 구름많겠다.

◇지역별 날씨(℃)

광주	비온 뒤	11/19	보성	비온 뒤	9/16
목포	비온 뒤	9/15	순천	비온 뒤	11/18
여수	비온 뒤	9/15	영광	비온 뒤	9/17
나주	비온 뒤	10/19	진도	비온 뒤	10/16
완도	비온 뒤	10/16	전주	비온 뒤	10/21
구례	비온 뒤	10/19	군산	비온 뒤	8/16
강진	비온 뒤	10/16	남원	비온 뒤	9/20
해남	비온 뒤	10/16	흑산도	비온 뒤	9/12
장성	비온 뒤	10/19			



◇바다 날씨

	오전	오후
서해 앞바다	북~북동 0.5~1.0	북서~북 0.5~1.0
남해 앞바다	북~북동 1.0~2.0	북서~북 1.0~2.0
남해 서부 앞바다(동)	북~북동 0.5~1.5	북~북동 0.5~1.5
남해 서부 앞바다(서)	북~북동 2.0~3.0	북~북동 1.0~2.0

◇물때

	밀물	썰물
목포	00:55 13:32	06:24 18:56
여수	08:32 20:44	01:59 14:33

◇주간 날씨

20(금)	21(토)	22(일)	23(월)	24(화)	25(수)	26(목)
10/17	4/16	3/15	3/14	2/15	2/16	3/17

◇생활지수

	80
	30
	30

“학부모 주민등본까지 내라니

광주 학교 109곳 개인정보 침해”

문태환 광주시의원 지적

張교육감 “잘못된 관행” 사과

광주지역 초·중·고교에서 학부모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
광주시의회 문태환(광산2) 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“광주지역 초·중·고교 314곳 중 109곳에서 주민등록등(초)본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밝혔다.

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학교는 초등학교 14곳(9.2%), 중학교 58곳(64.4%), 고등학교 35곳(52.2%), 특수학교 2곳(40%) 등이다. 상당수 학교에서는 1학년뿐 아니라 2·3학년에도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.

문 의원은 “학부모 주민번호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주민등록등본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”이라며 “특히 일부 교사는 주민등록등본상 부모가 함께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‘너의 부모 이혼했느냐’는 질문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까지 발생했다”고 지적했다.

일부 학교에서는 주민등록등본(1통) 제출을 버젓이 기재한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.

문 의원은 “학생생활기록부도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도록 했을 뿐 부모는 생년월일만 적게 돼 있다”며 “학교가 행정편의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”고 비판했다.

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“잘못된 관행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수집이 이뤄졌다”며 “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”고 사과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매일 24면…호남 최대 발행부수

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▶kwangju.co.kr



200억 이상

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
특별 한시판매

최저 연 3.3%~

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,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근저당권 설정비,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

근린상가
단독주택
나대지
원룸

담보 비율 : 최대 70%
최저 연 3.8%~

신용대출
(급여소득자)
(연금수급자)

대출한도 : 최대 5,000만원
상환방법 : 원금균등상환
대출기간 : 최대 5년
연금리 : 최저 7.0%

빛고을새마을금고

본점
062)525-2770~2
(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)

용주점
062)525-2774~5
(용봉동 주민센터 옆)

삼각점
062)525-2776~7
(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)